공동과학탐구토론대회의 과학성 향상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 제고: 한국미래과학자토론대회를 중심으로

심 규 철 (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)
김 여 상 (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)

한국미래과학자탐구토론대회(Korea Young Scientists' Tournament, 2003년에는 한국청소년과학탐구토론대회라 불렀음)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고 한국영재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 사업으로 현재 대학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,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및 각급 학교단위 영재학급을 중심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토론을 경연하는 대회이다. KYST는 종합적 탐색 능력과 분석력,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과학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조기과학영재의 발굴 및 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(KYST 홈페이지, http://www.kyst.or.kr/index.htm), 개인별 경시가 아닌 6명이 한 팀을 이루어 팀간에 경쟁을 하는 대회로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심은 물론 토론 위주의 대회 진행으로 적합한 의사전달 능력과 자기 이론에 대한 충실한 연구 능력 및 자신감을 소유한 과학영재들의 경연이라 할 수 있다.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 KYST에 참가하여 대상으로 입상한 팀과 예선에서 탈락한 팀 등 두팀에 대한 선발 및 교육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공동과학탐구토론대회의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 본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자율 응모, 1차 보고서 평가, 2차 발표 및 심층 면접 등 2단계에 걸쳐 참가자를 선발하였다.